

오늘날 한국 교회 무엇을 하고 있나

허명수(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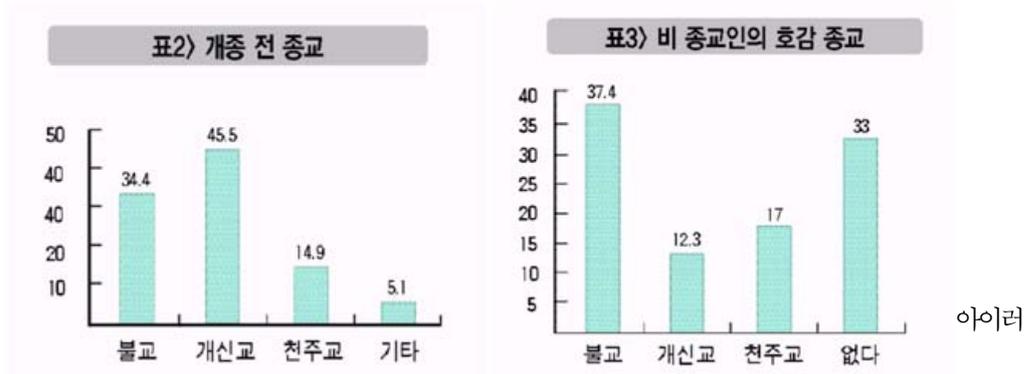
I. 들어가는 말

2007년은 한국 개신교의 교회사에 잊을 수 없는 해로 기억될 것이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490주년, 평양대부흥 100주년, 한국교회 선교부흥 원년으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특히 7월 19일 아프카니스탄 반군들에 의해 샘물교회 의료선교팀 23명이 탈레반에 의해 피랍되고, 그 중 배형규 목사와 심상민 형제가 순교한 사건 이후 한국 기독교(개신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의 사역과 정체성에 대하여 교회 안팎의 목소리가 가장 컸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선교사를 피송 받던 동양의 조그만 나라에서 이제 1만6천명의 해외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세계 제 2선교대국으로 성장한 한국 교회는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사회로부터 받는 비난이나 실망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1,200만 명 신도수를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최근 10여년간 쇠퇴하여 860만 명으로 급감하였다는 통계를 보고도 우리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늦기 전에 한국 개신교 부흥역사 100년을 되새기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주소와 평가를 냉정히 내리고, 새로운 역할을 통해 제 2의 부흥기를 맞이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II. 오늘날 교회에 대한 사회의 평가

2005년에 발표된 종교의식 Gallup 여론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고 수치스런 것이었다.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 부분에서 개신교 교인들이 45.5%로 가장 높았다. 즉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선호하는 종교를 묻는 설문에서 개신교의 호감도가 12.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신교와 구교를 합쳐도 불교에 못 미친다는 점을 볼 때, 오늘날 기독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아이러니한 상황은 개신교들이 신앙생활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소속 교회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높는데, 일반인들이 개신교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나쁘고 호감도도 가장 낮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를 감신대 이원규교수는 “개신교인이 믿음은 좋지만 종교적 및 사회적 태도와 의식,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배타적인 개신교인들은 외부의 따가운 시선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들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 평했다 (『기독교 타임즈』, 2005년 6월 16일). 교회에 이런 불신과 비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 한국인이 개신교에 건의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사회봉사 및 이웃사랑, 둘째, 지나친 전도활동의 금지, 셋째, 헌금을 강요하지 말 것, 넷째, 타종교에 대한 비방 자제, 다섯째, 사리사욕과 물질에 치우치지 말 것, 여섯째, 종파 간 화합 등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회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나쁠 것이며, 전도도 하기 더 힘들어져서 결국 한국교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임무가 새로운 교회로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은 이런 통계자료가 사실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수많은 네티즌들(기독교인도 포함) 피랍 사건 그 자체보다 훨씬 해외 단기 선교(의료봉사라는 이름으로 나갔어도)는 물론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책망과 비난은 예민하였고 피랍자 당사자 및 가족과 교회는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교회 비갈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난 10월 23일, 서울 연세대 신대와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 2007 '교회의 날' 행사 일환인 '이웃에게 길을 묻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여기에 기독교인, 불교신자, 교회 출석 경험자 등이 패널로 초청되어 여과 없이 교회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이라기 보단 울분이 섞인 개신교를 향한 성도대회라고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오마 이뉴스』 10월 24일)

이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언급되었다. 한때 교목(敎牧)이었다가 현재 목사직을 반납한 류상태씨는 패널로 나와서 오늘날 교회

가 '복음의 원형'을 잃어버렸고, 예수가 상품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신랄한 비평을 가했다. 이 외에도 패널로 나온 사람들은 교인들이 우월감으로 남을 훈계나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태도,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약삭빠르고, 위선적인 모습 등, 교인들의 인간성과 인격에 대한 문제들도 지적했다. 또한 공격성과 폐쇄성, 아집과 독선, 분열과 갈등의 조장, 계급화 등 교회가 사회에 비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도마에 올랐다. 다소 과장되고 감정이 억양된 면도 없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오늘날 우리 교회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은 아닐까?

III. 교회 내부에서 보는 한국 교회의 문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교회 내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 이것은 신앙노선과 신학적 배경에 따라 오늘날의 문제를 보는 각도가 사뭇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신교회(박중순 목사 담임)는 10월 8~10일 '제1회 비르신학 균형목회 세미나에서 예장 통합 등 5개 교단 101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교회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쿠키 뉴스』 2007년10월 10일). 교회의 외적 문제가 무엇이라는 질문에서 '자격 미달의 목회자 양산'이 문제=목회자들은 한국 교회의 외부적 문제점으로 '자격 미달의 목회자 양산으로 균형 잡힌 목회자까지 매도당하는 사회분위기(13.2%)를 가장 많이 꼽았고, '수평이동을 통한 교인 쟁탈전'(12.1%)을 그 다음으로 지적했다. 목회자들은 또 '신학대학 난립과 교역자 과잉'(9.7%) '개신교회가 분열돼 있다는 이미지'(9.6%) '교회의 양극화 현상'(7.9%)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방적인 전도와 선교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5.1%나 됐다.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역 사회와 동떨어진 화려한 외관의 교회라는 응답이 6%였고, 지역 사회와 동떨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응답이 4.9%, 두 가지를 합하면 지역 사회와 관련한 문제점 제기가 약 11%가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를 '균형 잡힌

교회의 외적 문제	
1 자격미달의 목회자 양산	13.2%
2 수평이동을 통한 교인쟁탈전	12.1%
3 신학대학의 난립과 교역자 과잉	9.7%
4 개신교회가 분열됐다는 이미지	9.6%
5 교회의 양극화 현상	7.9%
6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화려한 외관의 교회	6.0%
7 아래가 아닌 위로만 향하려는 교회	5.4%
8 21세기에 맞는 모두가 없음(불교:생태, 천주교:평화)	5.3%
9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방적인 전도와 선교	5.1%
10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프로그램	4.9%

교회의 내적 문제	
1 삶의 변화 없는 은혜만 추구	11.6%
2 믿음과 실천의 불균형	11.0%
3 목회윤리의 부재	10.8%
4 개교회주의	10.0%
5 목회자의 자질부족	9.4%
6 성도들의 물질 만능주의(기복신앙)	8.9%
7 전도 열심의 둔화	7.4%
8 교회성장 제일주의	6.7%
9 바른 신학보다는 영광적 반영신학이 지배	5.2%
10 성장과 축복을 동일시하는 일	4.2%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를 위한 방안	
1 목회자의 자질 향상	19.9%
2 개교회주의의 극복	14.8%
3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통한 사랑의 실천	14.0%
4 교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 증대	12.0%
5 기복신앙의 극복	10.4%
6 신학교육의 개선	7.7%
7 연약한 교회(농어촌, 도서지역)에 대한 애정	7.7%
8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 극복	7.1%
9 건강한 교회 재정 운영	3.7%
10 교회의 민주적 운영	2.6%

(자료:총신교회 제공)

건강한 교회라고 정하고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묻자, 문제점과 유사한 결과를 내었다.

상위 5개 항목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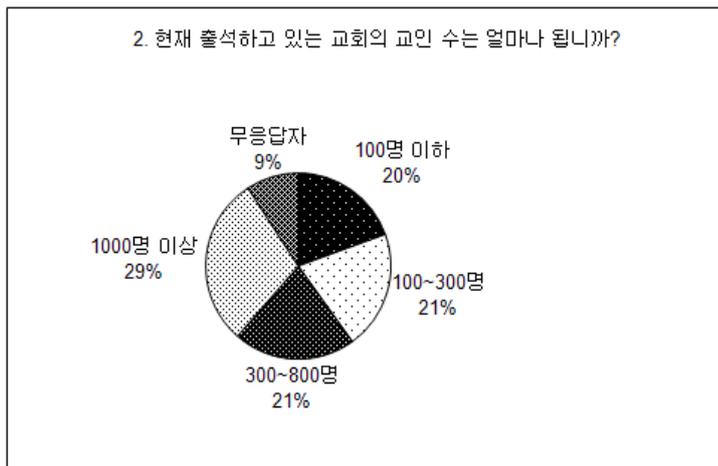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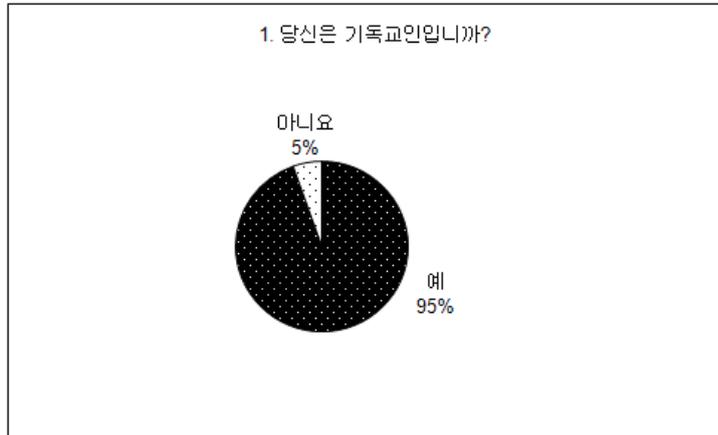
- 1) 목회자의 자질 향상 19.9%,
- 2) 개교회주의의 극복, 14.8%
- 3)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통한 사랑의 실천 14%
- 4) 교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 증대 12%
- 5) 기복신앙의 극복 10.4% 등이었다.

여기서 괄목할만한 것은 교회 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목회자의 자질 향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일부 자격 없는 목회자로 인해 다수의 균형 잡힌 목회자까지 매도당하는 사회분위기가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말한 목회자도 과연 얼마나 객관적으로 균형 잡힌 목회자인가가 문제가 된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지도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또한 균형 잡힌 목회자란 의미도 해석 여하에 따라서 매우 복잡해진다. 보수와 진보 사이의 균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와 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목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성과 인성의 균형을 말하는 것인지, 매우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추락하는 한국교회: 교회의 미래는 한국의 미래다』라는 책을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병폐를 지적한 이상성 교수(연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책 제목과 각 장의 소제목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제 1장 “한국의 교회는 문제덩어리 종합선물세트”에서 이교수는 교세확장과 무모한 해외선교에 대해 신랄한 비평을 가하고, 종말론, 창조과학, 보수주의자(특히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교회를 아들에게 대물림하는 교회의 사유화, 목회자의 타락한 사생활에 대한 서술이 시퍼런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사실 자세히 교회 내부를 현미경으로 보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고, 한국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교수의 비난의 목소리는 일반적인 비난에서 신학적인 면으로 가면서 다소 논점의 초점을 흐리고 문제의 어두운 면과 문제 해결의 희망적인 면과의 균형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특히 한국 교회의 제 문제를 보수주의와 근본주의 경향이 심한 기존교회에 돌리는 데 목소리가 지나치게 크고 거슬린다. 대화와 개방성을 주장하면서 비난 일변의 논점이 스스로의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수와 진보 사이의 비난에 가까운 서로 “네 탓이오” 식이 공 돌리기에 식상한 것도 사실이다. 서로의 신학적인 차이점을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 교회의 부활에 대해 논의하고 같이 기도해도 힘든 현실에 서로 비방을 할 경우 교회의 추락의 원인이 본인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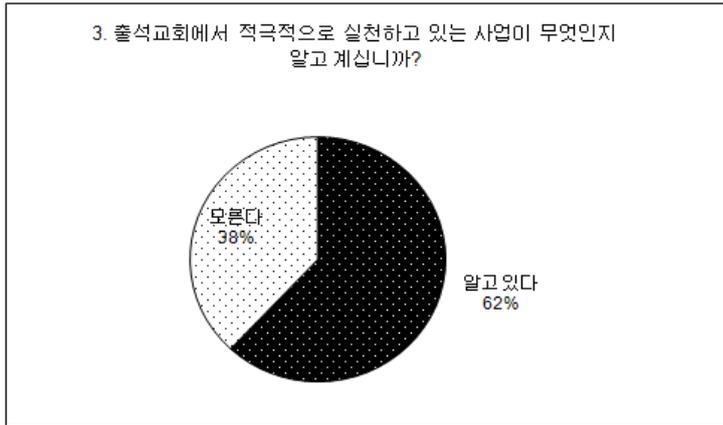
국민일보 2007년 3월 7일 11면 사설에서 이런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본 사설은 "한국교회의 본질

적 문제"를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벽으로 보고 있다.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벽만큼이나 깨어지지 않은 장벽"이 바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의 벽이라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나대로 총회와 '나대로 신학교' 난립상을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과거 보수주의적인 한국 교회의 흐름 속에 진보주의자들의 매우 도전적인 신학적 논쟁으로 인해 일반 신자들의 혼란과 목회 현장에서의 갈등이 결국 한국 교회의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신학적인 시각차이로 인한 갈등이 한국 교회의 쇠퇴를 야기하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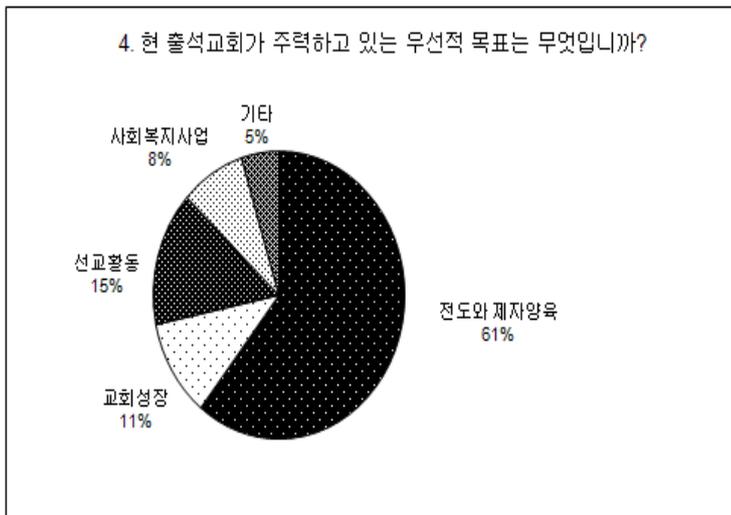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것과 젊은이들의 생각은 어떤 차이가 날까? 지난 11월 7일에 실시한 한동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젊은 기독교인의 평가가 드러난다. 설문에 응한 277명의 학부생들은 남녀, 전공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이중 비기독교인이 5%인 15명이었고 95%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1,000명 이상 대형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은 약 29%였고 나머지는 중소형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자신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약 62%,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약 38%에 해

당되었다.



4. 현 출석교회가 주력하고 있는 우선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1)	전도와 제자양육	88명(61%)
(2)	선교활동	22명(15%)
(3)	교회성장	16명(11%)
(4)	사회복지 사업	12명(8%)
(5)	기타	7명(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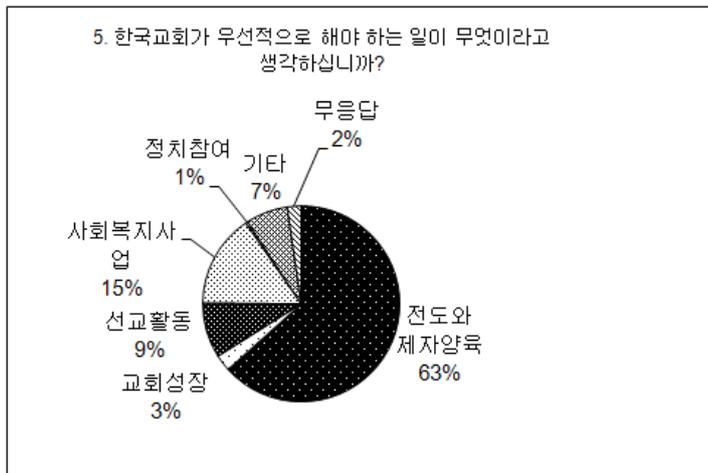


설문 4번에 관한 도표에 나타났듯이, 오늘날 교회들은 자체의 전도 및 제자양육 프로그램과 교회 성장을 위한 여러 사역 등 주로 교내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는 8% 정도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에는, 말씀 중심의 신앙양육, 청년사역, 성경교육, 환우분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젊은 학생들은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앞의 질문과 크게 다른 점이 사회복지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도

와 제자 양육 및 선교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동대 학생들은 총 3,500명의 재학생 중 매년 800여명-1,000여명의 학생들이 해외 단기선교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해외선교의 필요성을 생각하는 학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학생들이 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특히 하다고 할 수 있다. 기타 항목에 해당되는 답변에는, 성도들이 신앙과 직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교육, 교회 내부 개혁 및 재정비, 기독교 세계관 정립, 교회 내부의 자정능력 향상, 성경 공부, 바른 그리스도인 교육, 자체 정화,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개인 신앙 회복, 상한 마음의 치유 등이 있다. 여기에 특히 교회가 자정 작업, 혹은 자체 정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음은 교회 내부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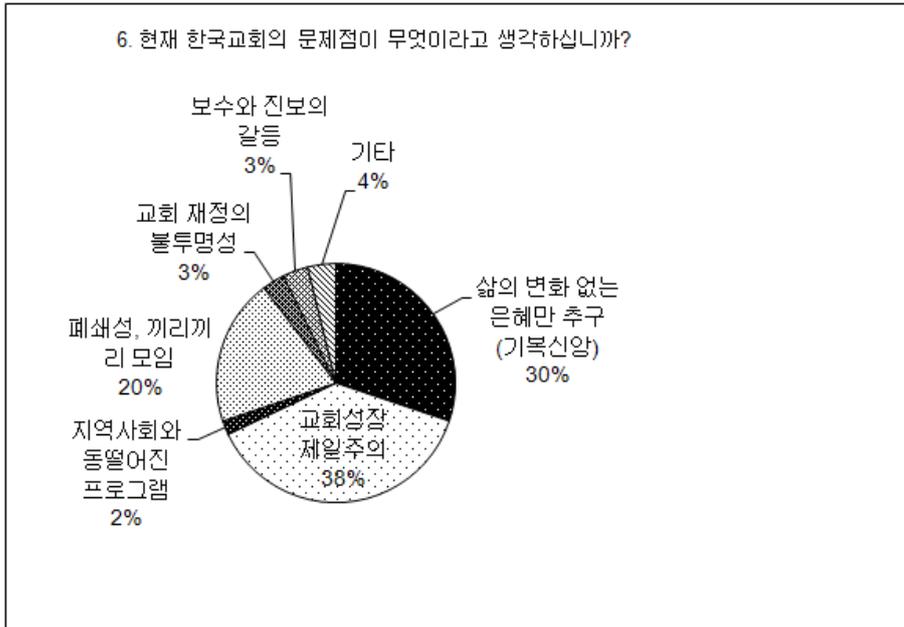
5.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도와 제자양육	166명 (63%)
(2)	사회복지 사업	40명(15%)
(3)	선교활동	24명(9%)
(4)	교회성장	7명(3%)
(5)	정치참여	1명(1%)
(6)	기타	18명(7%)



다음 질문으로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교회 내부의 문제점들을 주로 지적했다는 점이 괄목할만하다. 교회성장 제일주의(건물 증축, 신도수, 예산 확대 등)의 문제점을 제일 많이 지적했고, 다음이 삶 자체의 변화보다는 어떤 복이나 은혜가 공중에서 뚝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기복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다음이 닫힌 교회, 끼리끼리 모이는 폐쇄성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보았다. 사실 새로운 신자가 교회를 방문하거나 등록을 해도 기존 교회에 정착하려면 상당히 많은 벽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있다. 또한 다른 교파나 교단에 배우 배타적인 관계도 같은 맥락으로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외에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나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프로그램 등을 문제로 지적한 학생들도 소수지만 의미 있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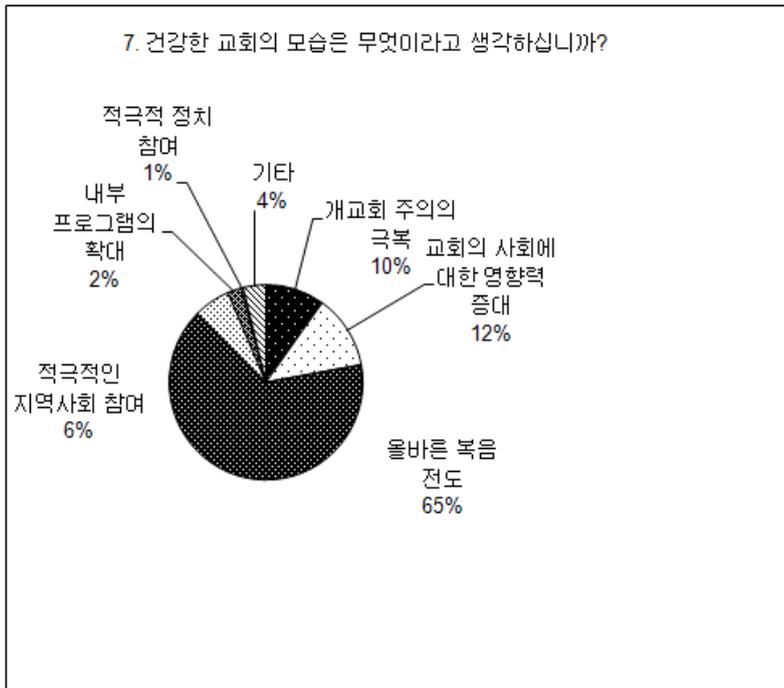
6.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교회성장 제일주의	99명(38%)
(2)	삶의 변화 없는 은혜만 추구 (기복신앙)	79명(30%)
(3)	폐쇄성, 끼리끼리 모임	52명(20%)
(4)	보수와 진보의 갈등	9명 (3%)
(5)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	8명(3%)
(6)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프로그램	5명(2%)
(7)	기타	10명(4%)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학생들(171명, 65%)이 올바른 복음전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 증대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각기 32명(12%)과 16명(10%)인데 이 둘을 합치면 48명(18%)이 된다. 한동대 학생들은 사회봉사를 학부 과정에 필수로 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관심과 기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몸소 체험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젊은이들은 교회가 좀 더 사회에 대한 영향력과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교회 담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사항 중 하나는 교회가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하여야 한다는 학생은 단 한 명밖에 안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여 그다지 좋은 면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 같다. 소위 말하는 장로나 교회 중직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되어서도 결국 본인이 가족과 친척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이 계속적으로 터지면서 정치 참여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또 설교 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기독교 후보와 마치 선과 악의 대결구조로 몰아세우는 것은 그 설교를 듣는 신자들에게도 매우 정치참여가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아닐지? 이점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아주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든다.

7.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올바른 복음 전도	171명(65%)
(2)	교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 증대	32명(12%)
(3)	개교회 주의의 극복	26명(10%)
(4)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	16명(6%)
(5)	내부 프로그램의 확대	6명(2%)
(6)	적극적 정치 참여	1명(1%)
(7)	기타	10명(4%)



지금까지 교회 내부와 외부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기독교 본질의 문제: 복음의 원형 상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추락하는 한국교회, 더 이상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다, '나대로 총회'와 '나대로 신학교' 난립
2. 목회자 문제: 자격미달 목회자, 신학대학 난립과 교역자 과잉, 교회를 아들에게 대물림하는 교회의 사유화, 목회자의 타락한 사생활

3. 교회 목회철학과 노선 문제: 헌금 강요, 신도의 계급화, 교회의 양극화 현상, 일방적이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전도 방식, 무모한 해외선교, 교회 내부 개혁 및 재정지체 정화 미비, 비 기독교 세계관 정립, 교회성장 제일주의, 재정의 불투명성, 삶의 변화가 없는 기복신앙,
4. 다른 교회와의 관계 문제: 수평이동을 통한 교인 쟁탈전, 지나친 개교회주의,
5. 교인들의 신앙의 성숙도 문제: 사리사욕과 물질 만능주의, 우월감으로 남을 훈계나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태도,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악삭빠르고, 위선적인 모습, 끼리끼리 모이는 폐쇄성, 상한 마음의 치유 부족
6. 사회와의 관계 문제: 사회봉사, 이웃사랑,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화려한 외관의 교회지역 사회와 동떨어진 프로그램적극적인 사회봉사를 통한 사랑의 실천교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 증대
7. 다른 종교와 교단과의 관계 문제: 타종교에 대한 비방, 종파간 불화, 분열, 폐쇄성, 아집과 독선, 분열과 갈등의 조장

IV.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한국 교회의 부흥을 맞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드러내놓고 비난할 대상을 찾고 성토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진정한 한국교회의 재건을 위해 각 교단,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목회자와, 평신도, 기독교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의식 있는 기독교성인들의 모임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론 원론적이기도 하고 때론 지나치게 세부적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 해결의 한 간절한 시도로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실행하기를 제안한다.

1. 기독교 본질의 문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3-15절).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때 부흥되던 교회도 어느

순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여 추락하는 모습이 늘 보인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 교회들에 대한 요한의 책망도 첫 사랑과 열정을 다시 찾기 위한 것들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사도바울의 고백처럼(고린도전서 15:31) 십자가 아래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의 감동과 의지의 결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수와 진보의 남북한의 이데올로기보다도 더 절긴 갈등의 골과 장벽을 허물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대화가 중단된 오늘날 ‘나대로 총회와 ‘나대로 신학교’ 난립은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서로 교회의 쇠락을 “네 탓이오”라고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같이 침몰하는 타이타닉 선원들이 될 것이다. 이단과 동역자의 경계선 다시 굵기 움직임이 진정한 토론과 대화의 장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런 토론의 장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예의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서로의 의견에 진지하고 인내심 있게 듣고 자신의 의견을 정중하게 표해야 할 것이다. 비난이나 인신공격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획일적인 단일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공통분모를 찾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요소들은 다시 공통분모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과 그렇지 못할 경우를 선정하여 정리하고 기록에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공통분모를 통해 동역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나아기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서로의 해석차이와 의견 차이가 심할 경우, 객관적인 차이를 기록하고 그 차이를 토론을 통해 좁힐 수 있는 가능성도 모색하며,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차이점보다는 공통분모를 더 강조하여 동역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아기는 논의가 필요하다. 수구꼴통, 근본주의, 보수파, 진보파, 자유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 칼뱅파, 아르미니안파, 에큐메니칼, 복음주의, 신신학주의 등 서로의 진영 사이에 경계선 다시 굵기를 통해 정체성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며, 이런 토론의 결과들을 한국 각 교단에서 모든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한 번 실행해 볼 만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논의를 통해 신학적, 개념적, 용어적 차이로 인해 혼란에 빠져서 방황하다가 교회에 희망을 버리고 떠나는 신자들을 다시 되돌려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열린 토론의 광장이 결국 한국 교회사에 중요한 전환점과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목회자 문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24:24)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7:15)

말세에 더욱 거짓 선지자와 샅군 목회자들이 많은 법이므로 누구라도 스스로의 자격을 묻고 문제가 되는 목회자에 대해서는 서로가 권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르기 위해 목회자들의 모임이 필요할 것이다. 목회자들의 권익보호이나 친교 차원보다도 더욱 진실된 목회자들이 되기 위한 커뮤니티가 절실하다. 그리고 많은 교역자들은 자격미달 목회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격미달은 학력의 문제보다는 기독 양심과 윤리와 신앙 문제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목회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명예제도, 윤리관, 진정한 목회자상 정립과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교인들이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신앙적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 아무리 변명과 구실을 다 해도 교회를 자신의 아들에게 대물림하고 교회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청지기 정신이 부재인 목회자나 여러 가지 탈선과 물의를 일으키며 타락한 사생활로 비난 받는 목회자는 스스로 자정하고 회개하는 움직임이 없이는 전체 교회가 신음하고 한국 교회가 덩달아 몸살을 앓는 디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격과 영성과 지성에 뛰어난 목회자가 많아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기야 비로소 누구나 목사가 되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이며, 신학대학이 난립하지 않은 것이다. 할 것도 갈 곳도 없어 신학대학을 가는 무자격 목사나 타락하고 호의호식 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런 영광을 누리려고 목사가 되려는 타락한 이리떼도 줄어들 것이다. 신자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대는 설교와 삶이 일치하는 가, 신앙과 삶이 통합되었는가를 구별하는 것이다. 설교는 속일 수 있어도 삶 자체는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듯, 거짓 열매도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위한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지난 10월 24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소속 15개 교단의 개혁적 담임목사 8000여 명이 모여 '한국 교회의 갱신과 본질 회복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종교개혁 490주년(10월 31일)을 앞두고 세속권력에 대한 추종과 외형적 팽창주의에 몰두하는 한국 교계의 자성과 갱신 및 사실상 제2의 종교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문 발표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소속 목사들의 결의 사항

1. 세속 정치의 소용돌이를 거슬러 진리의 편에 서겠습니다.
2. 수적 성장과 외형적 팽창 일변도의 선교와 전도 정책에서 벗어나겠습니다.
3. 물질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찾겠습니다.
4. 이 땅의 모든 약자들의 참된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결의문대로 행동에 옮기기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야 할 것이다. 그저 여럿이 모여서 행사적인 결의문 낭독과 동시에 원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목회에 변화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지

급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책망과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전에 먼저 목회자들이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

3. 교회 목회철학과 노선 문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교회가 부흥하며 교인이 급증하게 되면 교회당을 건축하고, 교육관, 커피숍, 서점, 주차장 등 부속 건물 및 시설을 세우게 된다. 새로운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하나의 새로운 모델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신앙의 성숙보다는 교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어느새 그런 외형이 교회 부흥의 잣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도 건물을 화려하게 올리고 화려한 복장과 의식에 치중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은 타락하게 되었다. 물랑주의, 성장제일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난한 미자립 교회와 대도시의 초대형 교회와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교회의 규모에 따라 대접 받는 교계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명함과 직분이 신앙의 성숙도를 가름하는 바로미터인 것처럼 되어 (무슨 집회나 대회의 포스터에 사진과 명함, 함자를 넣어 광고하는 악습—무엇을 광고하는 지 모른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사람들 모습만 크게 부각된다) 세상사람들이 하는 세태를 본받고 있는 것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가 된다면 답을 간단하지만 현실에서는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

재정의 불투명성은 자칫 교회가 물질적으로 타락하기 쉽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이므로, 많은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사람들은 거의 없다. 초심에는 청결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물질에 스스로 마음이 유혹을 받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반드시 투명하게 위원회에 의해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스스로 자정 프로그램도 작동하여 예산에서만은 가장 청결하고 공개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신교도 가톨릭처럼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세금 문제도 이제 외부에서가 아닌 내부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 헌금을 강요하는 상황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십일조나 기타 목적 헌금의 경우 신학적으로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각 교인의 신앙 양심과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전체 교회의 헌금 액수가 공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인의 헌금액은 철저히 비밀로 하여 사적인 비밀이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헌금액에 따라 교회 직분을 맡긴다든지 묘한 계급화가 되어 가는 모습은 동전 두 렵돈을 넣는 가난한 과부의 교훈(눅21:2)에서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것이다.

삶의 변화가 없는 기복신앙의 문제는 목회자에게도 많은 책임을 돌릴 수 있다. 목회자 자신이 삶의

변화가 없거나, 삶의 변화가 없어도 사모하기만 하면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혜만을 갈급하게 만드는 무기력한 신자로 만드는 설교를 통해서 그런 신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

또한 각 교회에서 시행하는 사역 중에서 최근 10여년 사이에 해외선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 해외 선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선교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선교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선교에 균형과 분수와 순서를 지키지(꼭 같은 중요성 인정) 자신의 교회의 형편에 맞게 기도하며 정하자. 유행이나 과시로 하는 것은 필히 실패하기 마련이다.

둘째, 선교의 시작은 국내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루살렘(서울 타락한 학원촌, 유흥가, 조폭 세계, 음지), 온 유대(농촌 미자립 교회, 소외된 사람, 해외 이주민, 노동자, 고아, 독고노인, 기타 국내 전 지역), 사마리아(북한과 해외 동포)에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선교의 마지막은 오랜 기간 신앙의 훈련을 받고 결단이 선 사람들을 선별하여 세상 끝(선교사들의 피 값으로 산 한국교회 성장, 세계 선교로 보답) 선교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넷째, 각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들간의 연합과 사역자들의 활동 통계가 절실하다. 한 선교지에 수백 명 혹은 심지어 수천 명씩 가서 서로 중복되거나 할 일 없이 귀한 헌금을 낭비하는 사례는 엄중히 색출할 필요가 있다. 또 유명무실하거나 유명 선교사 혹은 비리 선교사 역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 거짓 선지자는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 세계 방방곳곳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파송단체나 교회에서는 기도하며 돕지만, 혹시 잘못된 선교 사역이 되지 않도록 감독 역시 중요하다. 더구나 위험 지역에 진출할 경우는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더 세밀한 계획 아래서 해외 선교에 대한 계획과 실행,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해외 선교에 대한 모델로서 초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행적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초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이라고 할만한 것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있다. 1890년 중국 선교사 존 네비우스(John Nevius 1854-1893)가 초빙 받아 한국 내 선교사들의 선교 방법 원칙 제공한 것으로서, 자립 정신과 순회 선교, 성서 강조, 일상 생활에서의 신앙 강조, 교회 및 기관 분할 및 협력이다. 특히 교회 및 기관 분할과 협력 정신은 1892년 6월 11일 당시 한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선교를 하였던 북장로교회와 북감리교회가 협동하여 선교를 하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교 지역도 분할하여 중복되지 않는 방향을 택했다. 물론 선교사 사이의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1888년 종교 금지령 발포를 전후해서 알렌은 철저한 칼빈주의자 장로교인으로서 한국 왕실의 총애와 보수주의 세력을 대표했고, 국가와 교회의 유기적 연결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언더우드와 경건주의와 감리교 부흥회식으로 지방 및 거리에서 전도하여서 '고래고래 외치는 감리교인(the roaring Methodist)'이란 별명이 붙은 그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언더우드와 같이 협력하며 사역을 하던 아펜젤러, 스크랜튼, 게일과 같은 선교사는, 알렌이 왕실 사람들과의 교분과 왕실의 비용을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게일은 "알렌의 이름을 선교사 명부에서 아예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이에 대해서 알렌은 언더우드에게 의료사업과 교육에 치중할 것을 주장하고, 왕명 후 전도하

기를 당부했다. 한 때 알렌은 이들 선교사들을 싸잡아서 “미국의 선교본부는 너무나도 많은, 훈련 받지 못한 비신사적인 광기의 열광주의자들을 한국에 보낸다.”고 불평한 적도 있었다. (민경배 217-18)

그러나 이런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장로교에서 파송된 알렌, 게이, 언더우드와 감리교에서 파송된 아펜젤러, 스크랜튼은 초기 협동하여 선교사업에 매진하였다. 알렌은 임시미공사로 일하면서 명성황후 시해사건(1895)과 아관파천 사건(1896)을 겪으면서 미국이 제국주의 일본을 지지하는 것에 못마땅하여 1903년 루즈벨트 대통령(T. Roosevelt 1858-1919)을 찾아가 항변하다가 고함과 흥분으로 정면충돌을 하기 까지 하였다. 소련의 남하 진출에 대해 견제 세력으로 일본과 우방 관계를 맺던 미국은 결국 알렌을 1905년 공사직에서 해직한다. (민경배 236) 비록 종교적 신념과 취향에 따라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의 불만도 표시할 수 있지만 사역 그 자체를 멈추지 않고 온 몸을 던져 선교 사역을 했던 초기 선교사들의 모범을 배워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선교사들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타 교회와의 관계 문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중 심각한 것이 새신자는 별로 없는데 교인들이 수평이동을 통해 교인수가 증가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내고 교파간 교회간 교인 쟁탈전을 야기하고 결국 심한 마찰을 빚게 된다. 이는 연합을 깨고 개교회 중심으로 흐르게 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머리 맞대고 싸우는 모습이 새신자나 교회를 옹기하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과를 빚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 용어로 블루오션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기존 시장의 치열한 판촉 전쟁이 있을 레드오션 전략으로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찾아 고객을 찾는 블루오션전략이 필요한 시대이다. 경제용어를 사용하여 민망하기는 하지만, 기존 신자들을 서로 유치하려는 수평이동에 해당하는 레드오션전략을 탈피하고, 이제 아직 전도의 손길이 안 닿은,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전도를 하는 블루오션전략을 모색할 때이다. 예컨대, 해외에서 결혼하여 이주해 오거나 노동자로 온 사람, 해외에서 유학 온 학생이나 가족들을 국가별, 지역별, 연령별, 직장별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각자의 교회의 일이 아니면 다른 교회에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현상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단면이기도 하다. 물론 각자의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서 다른 교회에 신경 쓸 여지가 없겠지만, 때로는 교회에서 공공연히 다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엔 참여하기를 막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다

른 교회와의 연합은 물 건너가게 되고 교인들 사이에 적대감마저 부추긴다. 다른 교회에서 좋은 집회나 행사가 있을 경우 서로 협조하여 좋은 행사로 이어가는 방법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데 점차 이런 현상이 쉽지가 않다. 서로 마음이 맞는 교단이나 교회끼리 서로 상호 방문하여 사회를 위한 봉사 프로그램이나 집회를 기획하기를 제안한다.

5. 교인들의 신앙의 성숙도 문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 4:1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22:37-40)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1-33)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교인들의 신앙 미성숙에 있다. 교회를 구성하는 각 교인 개개인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고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다. 인격이 형성된 사람에게만 사회가 신뢰하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영성과 인성이 별개의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신앙 노선에 빠져 이웃을 무시하거나 전혀 개의치 않는 무례하고 안하무인적인 모습은 교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기독교 윤리 강령에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 생활자세가 중요하다. 그 기본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개념과 하나님과 이웃 사람의 개념으로 시작하면 윤리와 인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이런 일에 앞장 서고 있지만 각 개인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런 인간성과 윤리가 드러날 때 그를 통해 교회로 인도될 이웃이 자연히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운동이 아닌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비기독교인들의 눈에 비친 빼뚫어진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사리사욕과 물질 만능주의, 우월감으로 남을 훈계나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태도,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약삭 빠르고, 위선적인 모습들에 회사를 던진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공동체를 중시하다보니 그 공동체 밖의 사람들의 눈에는 끼리끼리 모이는 폐쇄성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참된 공동체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같은 지체

가 될 수 있다. 공동체의 가장 최악의 현상은 매우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패거리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 다 남을 왕따 시키는 끼리끼리 모이는 패거리가 될 경우 교회의 문을 막고 새로운 신자들이 못 오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신앙의 성숙은 공부하는 기독지성에서 온다. 성경과 교양서적, 신앙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지성인의 교회가 되자. 그 어떤 재미가 있더라도 교훈과 말씀이 왜곡되거나 실종된 행사나 모임은 자제하자. 모든 갈등과 이견은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해결하여야 세상의 모든 이슈들에 대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분석과 비판, 대안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존 스토틀(John Stott)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야말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스토틀가 말하는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노동문제, 정치문제, 동성애문제, 이혼문제, 인권문제, 노사문제, 낙태와 안락사 문제, 문화문제 등 다양하다. 이외에도 토지문제, 진화론 문제, 투기 및 도박 문제, 통일문제, 해외 이주자 문제, 성차별 문제, 성희롱 문제, 배아줄기세포 및 유전자 과학 문제 등을 이해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참여하여 성경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사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인 것이다. 단지 전문성이 결여되어 선 불리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독교인 중에 해당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교회에서 격려하고 후원하여 기독전문가들을 양성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교회가 단순히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던 시대에서 이젠 기독 과학자, 지성인, 정치인, 문제해결사를 키워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단계가 온 것이다. 이런 성숙한 기독지성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주역이 될 때 한국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6. 사회와의 관계 문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덤계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약 2:15-17)

지역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화려하고 우뚝 솟은 교회건물,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프로그램 등이 교외 밖의 사람들이 교회 담장 안을 보며 불멘소리를 내는 것 이유 중의 하나이다. 다행히 최근 사회 봉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웬만한 교회에서는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두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관심을 획기적으로 사회에 돌려야 한다.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여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 즉 건물이 아닌 예배공동체, 신앙공동체를 의미하며 사회에서의 사역 역시 신앙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이뤄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이중적 삶을 버리고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 교회 건물 안과 밖 그 어디에서도 똑같은 예배의 연속이

되어야 한다.

먼저 교회는 사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된다. 사회개혁을 일으켰던 초기기독교 공동체에서도 과부와 고아들의 구제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도 소위 '삼위일체식' 선교방식으로 교회, 병원, 학교 등에 초점을 두었다 (김정권 23). 여기에 서구 문화와 사상을 소개하여 사회를 개혁하였다. 또 YMCA같은 새로운 단체와 협회와 모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면서 선교사들은 한국 사회를 문명화시키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 성서번역과 문학작품 번역을 통해 종교는 물론 세계의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역할도 선교사들이 담당했다. 이에 대한 역사를 잠시만 훑어보아도 초기 한국 교회가 해외선교사를 통해 얼마나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켰는지 알 수 있다.

1) 성서 번역과 문학 번역, 신문, 사전 출간

* 존 로스(John Ross 1842-1915), 존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1837-1905): 중국에서의 한국어 성서 번역. 『예수성교 누가복음데자』(1882년 3월), 『예수성교요안복음』(1882년 5월) 존 로스와 이응찬, 김진기, 백홍준 공역으로 누가복음 초역, 맥킨타이어가 이들 한인 번역자들과 함께 원문에 가깝게 재수정. 한미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지던 1882년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점이 중요. 한미수호통상조약 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미국 선교사 파송 이어짐. 존 로스 『한국의 역사, 고대와 근대』(History of Korea, Ancient and Modern) (1879)

* 이수정 (1842-1886)은 일본에서 일본성서공회의 헨리 루미스 목사의 청탁으로 『현토 한한 신약성서』(懸土漢韓新約聖書) (1884) 복음서와 사도행전 한문에 토를 단 성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1885) 요코하마 미국 성서공회에서 1천부 발간.

* 언더우드(H. G. Underwood 1859-1916):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지참하여 한국 입국. 1894년 서울에서 수정, 간행.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 회장 역임하며 성서의 번역사업 주관. 『한영사전』, 『영한사전』 출판(1890), 『그리스도신문』 창간(1897)

* 게일(J. S. Gale 1863-1937): 한글성서 번역, 『한영대사전(韓英大字典)』(Korean-English Dictionary) (1897) 한국 최초의 영어사전을 발간, 『천로역정』을 영한 번역, 『한국풍속지』, 『구운몽』,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 등 한국의 고전을 한영번역 하여 세계에 소개. 『한국어의 변천』(Korean in Transition), 『한국근대사』, 『한양지』(漢陽誌), 『한국결혼고』(韓國結婚考).

* 아펜젤러 (H. G. Appenzeller 1858-1902): 1887년 한국 성경번역부가 생기자 언더우드, 게일 등과 함께 성경 국역사업에 참여, 1895년 월간잡지 『한국회보』(The Korean Repository) 복간, 편집. 1902년 목포 성경번역자회의에 참석차 배를 타고 가다가 충돌사고로 의사.

2)교육 사업

* 아펜젤러, 배재학당 1885년 8월 설립

* 감리교 여자 선교사 메리 스크랜톤 이화학당 설립 (1886)

- * 베어드(W. H. Baird 1862-1931) 숭실학당 (1897), 한국 최초 4년제 대학 숭실대학(1906) 설립.
- * 언더우드 제중원에서 물리와 화학 강의. 경신학교에 대학부 개설(1915), 연희전문학교로 발전

3) 의료 사업

* 알렌(H. N. Allen 1858-1932) 1884년 9월 20일 제물포 입항 의사 신분, 왕실의 시의 1885년 4월 14일 광혜원(제중원) 설립 허가 (최초의 기독교 조직체 설립) 후에 세브란스 병원(1904), 연희전문대와 합병하여 연세대학교(1957)로 발족.

괴질(호열자) 치료: 1896년 괴질로 매일 수없이 죽어갈 때 새문안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헌신적 시료 고종의 하사금으로 새문안교회 건축

4) 사회개혁, 서구 문화 소개, 인권운동

* 언더우드 YMCA 조직(1900),

*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1834-1904): 감리교 여성운동단체인 조이스회설립 (1897년10월31일)

* 언더우드부인: 여자의사 선교단. 정동예배당에서 남녀가 합석하여 남녀동등 문제 토론 (1897년 12월)

* 무어(S. F. Moore 1846-1906): 1895년 4월 백정 박씨와 지씨를 격려하여 백정해방에 대한 탄원을 왕께 올려 윤희 받음. 박씨는 장질부사로 사경을 헤맬 때 고종의 시의 에비슨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개종. 그는 1916 장로, 그의 아들 박서양은 한국 최초의 대학교수

* 무당 미신에서의 해방: 교회가 무당에 대해 연구. 비과학적인 축사 치병에 국가적 손실 막는 노력

이러한 사회봉사와 사업으로 인해 초기 선교가 성공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에서 신음하던 시기에 뒤에서는 일본과 제휴를 맺어 일본의 한국 지배에 관여를 하지 않아 한국민에게는 제국주의적인 냄새를 가장 적게 내었던 미국이라서 선교하기에 적절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우리 국내의 선교는 물론 해외 선교에도 비슷한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다나 월뱅크스(Dana Walbanks)의 말처럼, 신앙생활을 사회에 대한 사역 선교와 사회 봉사의 범주로 확대시켜야 한다 (이재정 22 재인용).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회적 문제들을 교회 신앙생활의 범주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신자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훈련하여 사회적 공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회가 사회 변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신자들을 훈련시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다른 여러 교회와는 물론 시민 단체와 연대하여 사회 변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각 교회는 사회의 모든 이슈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개 교회 혹은 여러 교회와의 연합된 사

회 개혁에 대비한다. 사회봉사도 마찬가지로 한 교회가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예컨대, A교회는 독거노인에 대한 봉사를, B교회는 해외이주자에 대한 섬김을, C교회는 결혼가정의 이동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차별화, 전문화, 지속화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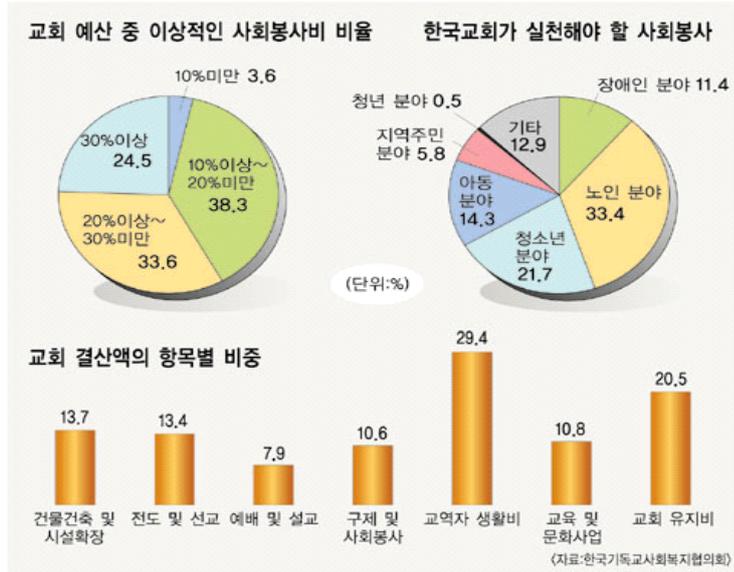
또한 교회에 가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다시 심어야 한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는 무언가 새롭고 재미있고 유익한 것들을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 시간 전 한 시간 전부터 교회 주위를 서성이며 예배시간을 기다리던 모습이 아직 생생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 게다가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억지로 조직 참여 시키거나 강권으로 어떤 행사나 모임에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어 심신에 부담을 받아 교회에 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제 교회에 가면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 실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 교회는 더욱 전문성을 높여 지식의 호기심, 영적인 갈급함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CCM 음악, 연극, 문화, 스포츠, 예술 프로그램, 예배와 성경공부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교회는 더욱 전문성을 높여 지식의 호기심, 영적인 갈급함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 교회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2006년 8월 10일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는 서울 남산동 높은뜻송의교회 청어람에서 28개의 중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재정운용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교회의 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무관리행정비(22.28%)와 사례비(16.91%)였고, 선교비가 10.67%에 달했지만 구제비는 3.11%에 불과했다. (『뉴스파워』 2006년 8월10일자 기사 참조)

지출항목 대분류	전체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그룹5
사례비	16.91	40.14	29.52	25.12	25.16	15.29
예배, 묵회비	3.37	2.96	4.95	4.43	5.98	3.05
관리비	5.25	5.79	7.56	2.22	5.78	5.37
사무관리행정비	22.28	15.42	21.67	26.2	23.89	21.92
전도비	0.78	0.68	1.31	1	1.92	0.67
친교비	0.4	3.28	1.99	0.58	1.35	0.26
행사비	1.42	0.65	1.94	1.77	3.21	1.24
교육비	5.92	2.9	5.8	9.73	9.04	5.41
구제비	3.11	0.23	1.98	3.55	3.67	3.07
선교비	10.67	5.89	4.06	8.46	5.79	11.38
외부지원	0.99	5.3	2.78	3.8	3.93	0.49
자산취득, 적립	10.23	7.89	10.81	5.57	7.59	10.76
부채상환금	11.42	8.88	0.39	0.21	1.3	13.27
금융비용	2.51	0	4.98	0	1.23	2.75
기타지출	2.98	0	0	7.03	0.01	3.02
예비비-지출	1.78	0	0.25	0.34	0.17	2.05

이보다 몇 달 뒤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가 여전히 열악한 상태지만

그나마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나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된다. 120년 한국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현황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료가 지난 2007년 1월 30일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대표회장 손인웅 목사)에서 발표 되었는데, 1년여 동안 1만여 교회(13개 교단 9500여명의 목회자와 전도사 등 교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물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은 최근에 조사한 것이며 많은 표본(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이 있는 통계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구제 및 사회복지에 사용하는 교회 예산은 약 10.6%이지만, 이를 세분해서 보면, 사회복지에 교회 총 재정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교회는 8.9%만 해당되었고, 10~15% 미만을 지출하는 교회는 13.4%, 5~10% 미만을 지출하는 교회는 38.1%, 5% 미만은 33.3%였다.

바라기는,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른 예산을 줄더라도 이제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지역사회 의 봉사과 사회사업, 문화사업, 복지사업에 획기적인 투자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교회의 부흥은 물론 사회와 교회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복음화 되는 과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국내에 튼튼한 기반이 마련되면 해외 선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7. 다른 종교와의 관계 문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며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찌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 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시실 것임이니이다(셀라) 하나님이며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시편 67:1-5)

비기독교인이나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는 불만의 원인 중 하나는 타 종교에 대한 비방이나 폐쇄성과 아집과 독선에 관한 내용이다. 단군상 철거와 같은 행위나 사학법개정을 위한 시위나 강권 행위들이 타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에게 기독교의 공격성과 집단 이기주의로 보고 있다. 이런 집단적 실행을 할 경우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없는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논리적으로 종교자유에 침해로 인해 단군상 철거의 법적 대응이 일어나서 교육부가 스스로 각 학교에 있는 단군상을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를 기다렸다면 좀 더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단군상에다 흉한 페인트나 낙서를 통해 반감을 사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사진 참조) 이런 공격적이고 비이성적 행위는 기독교 전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반감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감정은 전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사회 문제 불신자들에게 일종의 반감을 주는 행동보다는 먼저 모든 민족과 열방이 같이 주를 찬송케 할 일들을 찾아볼 수 있으면 그들에게 신뢰감과 호의를 갖게 한 뒤에 같은 행동을 했더라면 그들의 동조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것은 한 사안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총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V. 나가며

종교개혁 490주년, 평양대부흥 100주년, 아프카니스탄의 피랍 및 순교 사건 원년인 2007년도 이제 한달 보름을 남겨놓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난 10 여년간의 침체에 계속 빠져드느냐 아니면 다시 회복하느냐의 기로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아프카니스탄 사건 이후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는 등 총체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목회자와 기독교성인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교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볼 멘 소리나 요란한 비난의 화살에 대해 무감각으로 대하거나 지나치게 과잉반응으로 대결의 국면을 보인다면 한국 교회는 서구교회에서처럼 쇠퇴기에 접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서 제 2의 부흥의 시대를 여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1. 기독교 본질의 문제: 추락하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회개와 자성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복음의 원형 상실에 대하여 모든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공통분모 찾기와 경계선 다시 긋기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학이 정립될 것이고 결국 '나대로 총회'와 '나대로 신학교'의 난립상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2. 목회자 문제: 자격미달 목회자와 교역자 과잉 문제는 기독교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목회자 검증 과정의 정립되어야 해결될 것이다. 목회자의 교회 사유화 및 세습상속의 폐단을 물론 여러 목회자 타락에 관한 문제는 양식과 문제의식을 느끼는 목회자들이 모여, 목회자의 청지기 정신, 기독교 윤리강령, 명예헌장, 신앙과 삶의 통합에 관한 합의를 만들어 자정 노력이 해결의 근본이 될 것이다.

3. 교회 목회철학과 노선 문제: 현금 강요, 교회성장 제일주의, 재정의 불투명성에 관한 문제는 물질만능주의, 세속화, 과시주의 등에 대한 잘못된 의식에 대해 교계에서 각성의 움직임이 이미 일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지속되도록 기독교 언론매체와 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목회자들의 섬기는 리더십에 대한 운동도 기대된다. 교회 담임목사를 위시한 교회 지도자들의 출선수범이 선행되어야 이런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것이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선교에 대해서는 중복적이고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선교를 정리하고 서로 정보의 교환과 자정운동, 그리고 한국 선교 초기의 네비우스 전략같이 해외 공동된 지역에서의 모든 선교사들이 모여 협동적인 전략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선교의 우선순위와 교회 전체의 예산과 힘의 균형을 생각하여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선교보다는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4. 다른 교회와의 관계: 교회 간, 목회자 간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교인 쟁탈전이라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조롱조로 말하는 신도들의 수평이동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드오션 전략이 아닌 블루오션 전략을 세워서 아직 방치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지나친 개교회 중심으로 인해 교단과 교회간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불편하게 되지 않기 위해 윈윈 전략으로 해당 교구에 효과적인 전도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5. 교인의 신앙 성숙도 문제: 교인의 신앙 성숙은 목회자의 신앙성숙도와 비례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목회철학과 운영이 성장제일주의, 물질만능주의, 세속화로 비쳐지고 목회자의 타락이 드러나면 필경은 교인들에게서도 같은 현상이 드러난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것을 그분을 위해 잘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생각만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교인들이 여러 윤리적, 도덕적, 인격적인 문제들을 보여줄 때, 한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기독교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겸손하게 말씀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교인들 사이의 도덕재무장 운동이나 명예제도 운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교인들 사이에서 끼리끼리 모이고 처음 온 사람이다 마 음에 맞지 않는다고 배타적인 폐거리를 만드는 것은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이다.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하나가 되어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듯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보완적이고 포용적인 기독교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기독교지성인들이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교회에만 국한 되어 복을 비는 기복신앙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교회가 될 것이다. 또 신앙의 성숙은 공부하는 기독교지성에서 온다. 성경과 교양서적, 신앙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지성인의 교회가 성숙한 교회이다. 존 스토트가 강조했듯이,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야말로 현대 그리스도인, 특히 기독교지성의 책임이다. 노동문제, 정치문제, 동성애문제, 이혼문제, 인권문제, 노사문제, 낙태와 안락사 문제, 문화문제, 토지문제, 진화론 문제, 투기 및 도박 문제, 통일문제, 해외 이주자 문제, 성차별문제, 성희롱 문제, 배아줄기세포 및 유전자 과학 문제 등을 이해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참여하여 성경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사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인 것이다.

6. 사회와의 관계 문제: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화려한 외관의 교회나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프로그램 등의 문제는 최근 들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관심을 획기적으로 사회에 돌려야 한다.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여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 즉 건물이 아닌 예배공동체, 신앙공동체를 의미하며 사회에서의 사역 역시 신앙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 한국 초기 선교사들은 기독교, 교육, 의료 등 소위 ‘삼위일체식’ 선교 방식을 썼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 문화, 예술, 복지 등 사회 발전과 개혁에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교회에 가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다시 심자. 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는 무언가 새롭고 재미있고 유익한 것들을 배우고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억지로 조직 참여시키거나 강권으로 어떤 행사나 모임에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어 심신에 부담을 받아 오히려 교회에서 기대되어지는 새로운 정신, 회복, 씬, 평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교회는 더욱 전문성을 높여 지식의 호기심, 영적인 갈급함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CCM 음악, 연극, 문화, 스포츠, 예술 프로그램, 예배와 성경공부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 각 교회는 사회의 모든 이슈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개 교회 혹은 여러 교회와의 연합된 사회 개혁에 대비하되, 독거노인에 대한 봉사, 해외이주자에 대한 섬김, 결손가정의 아동문제 등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회별로 차별화, 전문화,

지속화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면 교회가 다시 사회의 발전과 개혁의 중심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맞춰 각 교회는 예산을 확대 배정하여 이제 최소한 각 교회마다 예산의 10의 1조에 해당하는 10%정도는 우리의 이웃인 사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7. 다른 종교와의 관계 문제: 최근 단군상 철거와 사회법개정을 위한 교인들의 반대시위 등 이슈에 대해서 타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 교회에게 느끼는 교회의 배타성이나 폐쇄성과 아집과 독선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논리적이고 법적인 방법을 통해 인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불필요하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반발을 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민감한 사안일수록 연속적이고 총체적으로 합법적,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문제에 대한 현상과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개인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한 개인이나 한 교회가 혹은 한 교단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온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모여 기도하고, 토론과 대화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비록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긴 안목으로, 연합하여 실행해 나가면 한국교회는 분명코 제 2의 대부흥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사회는 물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기독교역사문화연구소 『11명의 전문가가 본 한국의 기독교』. 도서출판 겹보기. 2001.
- 김명혁. 『한국교회 쟁점 진단』. 규장. 1998.
- 김정권 “한국사회와 기독교의 수용 ” 11명의 전문가가 본 한국의 기독교 도서출판 겹보기. 2001. 15-35.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한국민족교회 형성 과정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 송인규.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IVP. 2006.
-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성서유니온교회. 2006.
- 이상근 외 16인. 『』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한국문서선교회. 1992
- 이상성 『추락하는 한국교회』, 인물과 사상사 2007.
- 이재정. 『한국교회 운동과 신학적 실천』. 다산글방. 2000.
- 존 스토트 정옥배 역.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IVP, 2005.